

# 만수천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재개발 꺼낸 남동구청장, 정작 구는 계획 無?

### 박종호 구청장, 구월4동·만수5동 재개발 지정해 공영주차장 확보 구 “공영주차장 확보는 용역 결과 나온 후 결정할 것”

만수천 복원사업으로 사라지는 공영주차장 300면 확보 방안을 두고 박종호 구청장과 구 집행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박 구청장은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재개발 사업 지정을 이미 두 차례 언급했지만, 집행부는 관련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구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역 결과는 연말에나 나올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 만수천 복원사업 추진 방안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18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한 기자간담회에서 “만수천 복원사업 추진 방안은 용역 결과가 나온 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만수북개 제1공영주차장에 그대로 세우기로 결정한 주차타워 건립과 사라지는 공영주차장 300면 확보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라지는 공영주차장 300면 확보 방안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달 2일과 18일 구청에서 진

행한 신년사와 기자간담회에서 만수천과 인접한 구월4동과 만수5동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 진행한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신청했다.

시는 6월쯤 재개발 후보지 1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신청 받은 후보지 가운데 구월4동과 만수5동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이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계획대로 두 곳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부족한 공영주차장 300면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는 이와 관련해 계획이나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기자

재개발 지정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계획이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청장 발언과 다르게 주차장 확보 계획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수천 주변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계획대로라면 만수천 복원은 2025년 시작된다. 가뜰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인데, 복원 사업 삼을 뜨는 순간 기존 300면의 주차장이 사라진다.

구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마음이라도 놓일 텐데, 구청장과 집행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으니 사업이 시작되면 주차 전쟁이 시작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용역이 최근 시작됐다”며 “이번 용역에 재개발 지정 등도 담아 최대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차타워 증축이 이뤄질 예정인 만수천 상부 모습.

남동구 제공

이것만은 **꼭** 김진구 미추홀구의원

## “주민들 요구사항 경청할 것”

### 직접 현장 살피며 주민들과 소통

#### “작은 사안도 신경 쓰는 게 구의원 역할”

김진구 인천 미추홀구의원(민주, 용현5·학익1·관교·문학)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매일 새벽 5시 30분 집을 나선다.

그는 재선 의원인 만큼 또다시 믿고 뽑아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게 앞으로의 의정활동 목표라고 설명한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용현5동·학익1동·관교동·문학동으로 지역 현안이 각기 다르다. 직접 하나하나 현장을 살피며,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믿음직한 구의원으로 정평이 났다.

특히 미추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가 부족하다. 그는 지역구 곳곳에 녹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하대역 인근에는 지난해 뱃나무 100그루를 심었다. 올해 100그루를 더 심어 빗못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호아파트 주변 녹지를 개발해 돌레길 등을 만들어 주민에게 돌려주는 구상도 하고 있다.

또 예비군 훈련장이 철거된 승학산 활용 방안에 대해 15명의 구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 올해 돌레길과 계단 보수 등을 신경 써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학익동에서는 노후화된 버스정류장 헬터를 교체했다. 헬터란 박스 형태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덕분에 강추위에도 바람을 맞지 않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김진구 미추홀구의원, 김진구 미추홀구의원 제공

문학동은 도로가 비좁아 버스정류장이 열악하다. 의자 하나라도 놓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 구청을 설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현안에 맞춘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김 의원은 “작은 거라도 신경 쓰는 게 구의원의 역할”이라며 “미추홀구는 원도심으로 필요한 게 많다. 하나하나 변해가는 동네를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공약한 사항은 꼭 지켜야 할 일”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 편에서 항상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세계육상연맹(WA)인증 국제하프대회  
www.ggimarathon.com

NAVER 경기국제하프마라톤

지금부터당신의질주가시작된다

# GYEONGGI INTERNATIONAL HALF MARATHON 2023

## 경기국제하프마라톤

2023. 02. 26. (일) AM 08:30

수원종합운동장주경기장

부 문  
하프 / 10km / 5km (각각출발)

참 가 비  
하프 & 10km - 40,000원 / 5km - 30,000원

접수기간  
2023년 2월 9일 (목) 24시까지

접수처  
http://ggimarathon.com

문의  
사무국 070-4191-9335

경기신문 한국실업육상연맹 경기도육상연맹 수원시육상연맹

## 시의회, 무리한 예산 세운 시교육청 ‘질타’

### 엘로카펫·슬로우존 표시 예산 2억 세워 정중혁 의원 “예산 허투루 쓰지 말라”

2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사업에 질타가 이어졌다.

학교 담장 밖 사업에 교육청 자체예산을 맞지 않게 투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시민성 강화 사업’ 예산으로 2억 원을 세웠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슬로우존·엘로카펫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어디에 예산을 들여 ‘시민성 강화 사업’을 진행할지 세부 계획이 없었다.

‘시민성 강화 사업’ 가운데 엘로카펫은 횡단 보도 건너기 전 기다리는 장소를, 슬로우존은 차량 출입로와 학생 통학로가 겹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준다.

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스마트횡단보도를 조성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예산 10억 원도 지적

삭감했다.

예산 규모가 비교적 적은 시교육청이 학교가 아닌 학교 외부에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학교 외부에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 더 많은 사업의 부담을 시교육청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중혁 인천시의원(민주, 청라1·2동·사신)은 “슬로우존과 엘로카펫도 학교 밖 사업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면 앞으로 (학교 밖 사업도) 교육청 예산으로 전부 해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하굣길 교통안전 관련은 따로 시나 구에 협조를 요청해서 문제 없도록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응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학교 밖과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다”며 “인천시와 협조해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민지 기자

## 인천 대설주의보 해제… 마무리 제설 작업 실시

인천 지역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다. 인천시는 오전 11시 20분 인천과 강화군에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으며 눈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대설 예비특보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부터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오후 9시 20분 강화군과 옹진군에, 오후 10시 30분 인천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 서 밤새 7cm가 넘는 눈이 쌓였다.

26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중구 전동 8.4cm, 연수구 동춘3동 6.7cm, 부평구 구산동 5.8cm, 서구 금곡동 5.9cm, 강화군 불문면

1.6cm, 강화군 교동 1.6cm, 옹진군 연평도 8.2cm, 옹진군 백령도 4.5cm다.

시는 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제설제 2500t을 뿌리고 제설 작업에 장비 173대와 공무원 502명을 투입했다.

혼잡을 막기 위해 대비해 출근 시간대까지 지속적으로 제설제를 뿌렸으며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 제설취약구간 제설작업도 실시했다.

한편 지난 23일 발효된 한파특보는 지난 25일 해제됐다. 이후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는 232건이다. 23일 0건, 24일 6건, 25일 178건, 26일 오전 9시 기준 48건이다.

김설희 기자